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. 12. 27(금) 17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유통물류과 박영삼 과장(044-203-4380), 김희석 사무관(4384)

윤상직 산업부 장관, 철도노조 파업 관련 산업계 애로 청취

- 의왕 시멘트기지 및 컨테이너기지 방문, 민관합동 물류대책 회의 주재 -

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. 27(금) 의왕 시멘트 유통기지와 내륙 컨테이너기지(ICD)를 방문하고, 이어 시멘트, 석탄, 철강 등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민·관합동 물류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애로·건의 사항을 청취함

□ 그간 산업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된 12.9(월)부터 산업부문 대책반(반장: 창의산업정책관)을 구성·운영하고 철도 운송이 중단된 높은 시멘트, 석탄,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을 중심으로 산업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 해소에 주력해옴

□ 산업계는 그동안 재고물량을 사용하고 트럭 등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대처해오고 있으나,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수급차질로 인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

o 시멘트의 경우 전용트럭을 추가 확보(370대 →470대)하고 트럭 회전율을 높이는(日 2회 → 2.5회)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지만, 대체운송에 따라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어 시멘트업계는 대체 운송트럭에 대한 통행료 면제와 더불어 과적단속 완화 등을 요청

* 시멘트 분야 피해현황: 내수차질(486천톤, 357억원), 대체운송비 증가(5.2억원)
* 12. 23(월) 12:00부터 대체운송 화물트럭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

o 석탄의 경우 겨울철 연료용 및 발전용 석탄의 안전재고 유지·확보에 주력하여 왔으나, 석탄 재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석탄업계는 철도 운송 비중확대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

o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철도 운송분을 트럭으로 대체 운송함으로 수출입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, 업계에서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트럭 운전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

□ 윤상직 장관은 “산업생산과 수출입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파업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히면서 “산업계에서도 파업 장기화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줄 것을 당부함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